

# OPEC 석유장관 긴급회의 결과와 전망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OPEC** (석유수출국기구) 석유장관들은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빈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라크·쿠웨이트분쟁에 따른 원유공급부족을 매우기 위해 원유증산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증산 규모와 시기등을 회원국의 판단에 맡겨 자주적으로 증산하기로 한 것으로 일단 현재의 원유수급 압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을철 이후의 성수기에 들어서면 다시 공급부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유엔의 경제제재로 국제석유시장에의 수출이 막힌 이라크와 쿠웨이트원유는 하루 약 4백만배럴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는 분쟁전에 선적된 쿠웨이트원유가 시차를 갖고 도착하기 때문에 8월중의 부족분은 전월대비 3백80만B/D, 그리고 7월말에 결정된 산유쿼타수준에 비하면 약 2백50만B/D 정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이번의 추정증산규모는 모두 3백만~3백50만B/D로 대응가능한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시적으로 배럴당 3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고유가에 대한 예측과 분쟁이 아랍전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연유된 것이었다.

OPEC사무국의 시산에 따르면 국별증산능력은 사우디아라비아 2백만B/D, 아랍에미리트·베네수엘라 각각 50만B/D, 나이지리아 25만B/D, 이란 20만B/D, 리비아 10만B/D, 인도네시아 5만B/D 등이

다. 이번 결정에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이란과 회의에 불참한 리비아분을 제외한다해도 3백50만B/D는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우선 2개의 의문이 생긴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원유수급이 실제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는 금년 4/4분기 이후의 수요증가에 과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부 석유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9월중에 1백30만B/D 증산에 그치고, 2백만B/D를 풀로 증산하는 것은 2~3개월 이상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이라크의 공격의 화살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석유개발이나 정제에 필요한 외국 인근로자의 사우디아라비아탈출이 잇따르고 있어 증산 스케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4백만B/D분이 완전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사태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풀로 증산한다 해도 이를 메꾸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거래가격은 어디까지나 시장가격이 적용될 것이다. 이라크에 나라를 빼앗긴 쿠웨이트의 할리파재무장관(前석유장관)은 『이번 증산으로 원유가격은 배럴당 21달러의 현행표준가격(최저참고 가격)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고유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OPEC의 예측에 따르면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까지의 성수기에 석유수요는 2천4백만B/D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결국 현재의 공급부족에다 다시 2백만~2백50만B/D의 공급부족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OPEC의 생산능력은 현재 풀가동상태이지만,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PEC의 긴급증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당초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이번 회의에 이라크와 리비아는 불참했으며 이란은 증산안에 반대했다. 앞으로 中東사태가 호전되지 않는한 오는 4/4분기의 유가는 9월 유가에 비해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지난 7월 OPEC총회전에 배럴당 25달러까지 최저참고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앞으로 배럴당 30달러까지 인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현재의 국제유가는 점차 이와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